

제46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훈·포장 9명, 대통령표창 6명 등 총 54명 수상 영예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한 '제46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가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김쌍수 전기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기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대강당(한빛홀)에서 개최됐다.

김쌍수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의 성공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전력인들이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은 이날 치사에서 우리 전기인들의 결집된 역량과 열정, 그리고 정부와 협력이 시의 적절하게 조화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신화가 연이어 창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제46회를 맞는「전기의 날」기념식은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하는 전기계 최대행사로 전국의 전기인과 전기계 원로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모든 전기인의 굳은 결속과 전기산업계의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협회는 전기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 파크, 4. 13~15)을 개최한다.

5월, 제주서 제8회 전력전자국제학술회의 개최

- 5월 30일 부터 5일간...

(사)전력전자학회(회장 한병문)는 전 세계 전력전자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시장을 전망하고 전기에너지의 新기술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제8회 전력전자국제학술회의(ICPE 2011-ECCE Asia : 2011 IEE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ECCE Asia)' 를 5월 30일부터 5일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가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ECCE(Energy Conversion Congress & Exposition)에 대응하는 ECCE-Asia 학술회의로서 전력전자 분야의 국내외 관련 기술 수준을 소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술발표를 통해 국가 간 학술 교류와 신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봄에 일본, 중국, 한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Green World with Power Electronics'를 주제로 4명의 기조연사 및 패널과 약 40개 국가의 전력전자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연구자 700여명이 참가, 5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학회에서는 청중과 함께 자연스러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인 랩세션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자동차 등의 연구 현황 및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전력전자 관련 18개의 스페셜 세션 및 그린데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설승기(서울대학교 교수) ICPE 대회장은 “이번 학술

회의를 통해 국내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며“국내 학술수준의 제고 및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관련 업체들의 기술과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UAE 원전 기공식 참석

- “한국형 원전 안전·효율성 최고 중동지역에서 좋은 모델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부다비 서쪽 해안 지역의 브라카에서 열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용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 동판 제막식에 이어 ‘한국과 UAE의 원자력 협력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바라는 세계 모든 국가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타입캡슐 내장용 기념문안에 서명했다.

국내 원전, 쓰나미 가상해 총 점검

- 원자력안전위 세부안 확정
- “별도 상설위 신설도 검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나라 원전도 거대한 쓰나미(지진해일) 등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총체적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 국내 원전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 발생→ 대형 쓰나미 발생→ 전력 공급 중단→ 원자로 노심용해(핵연료봉이 녹는 현상) 등 후쿠시마 제1원전과 비슷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격납용기, 비상전원시설, 핵연료 저장시설이 지진에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구조물별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지진·해일 등으로 전원능력이 상실됐을 경우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오래된 원전은 펌프·배관 등 주요 기기 관리 상태와 노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전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탈피,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균형 있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토목공학)와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기계공학)가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을 맡고, 6개 분야로 나뉜 실무 점검단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다수 편성되어 함께 조사에 나선다.

방조제 길이 18km...

인천만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만든다

- 한수원·GS건설 양해각서 체결
- 인천 전력 소모량의 60% 생산



인천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건설된다.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그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은 지난해 2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까지 3조 9000억 여 원을 들여 강화군 동검도 남쪽~옹진군 장봉도~중구 영종도, 용유도를 둘러싼 해역(157.45km²)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을 썰물 때 내보내는 낙차를 이용해 3만kW 규모의 수차발전기 44기가 132만kW를 생산하게 된다. 한수원이 밝힌 연간 발전량은 24억 1000만kWh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가정용 소비전력량의 4.5%이며 인천에 공급되는 가정용 전력 소모량의 60%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규모도 세계 최대다.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24만kW)는 물론 올해 6월 완공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용량(25만4000kW)보다도 5배 이상을 생산한다.